

# 韓國 씨름에 關한 史的 研究

崔 大 雨

## I. 序 論

오랜 옛날부터 우리 民族이 行해져 오는 技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中 우리 固有의 國技같은 印象을 주는 것은 씨름인 듯 하며 年中行事의 하나로 名節때면 으레히 씨름, 즐다리기, 창치기, 차전놀이, 거북놀이, 두레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윷놀이 등을 季節에 맞춰 行해 왔다.<sup>1)</sup>

특히 陰曆 5月 5일이 되면 端午節이라 하여 男子들은 이웃 마을과 힘겨루기 내기로서 강변에 모여 씨름을 하였고 7月 보름에는 百衆날이라 하여 역시 씨름을 하여 壯士를 가려내고 8月 秋夕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왔지만 西歐 外來文化의 影響을 받아 많은 球技種目에 밀려 그 發展이 沈滯되어 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美風良俗은 시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듯 祖上의 숨결이 스며 있는 우리 民族 固有의 民俗인 씨름을 復活하여 民族의 正統性의 確立은 물론이고 傳統文化의 普及과 發展, 그리고 體育을 專攻하는 사람들에게 微力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文獻을 통한 史的 研究를 試圖한 것이다.

## II. 씨름에 대한 世界史

古代 文化 發祥地의 하나인 이집트에서는 씨름을 하는 形態가 繪畫에서 發見되었으며 그리이스 黎明期의 Mycenac文化를 서술한 “일리아스”(Ilias) “오뒤세이”(odyssea)에 씨름경기가 있었음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古代 民族과 部族制에서의 掠奪과 爭鬪의 세계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知와 힘만이 卓越한 개인으로서의 理想이었음을 볼 수 있다.<sup>2)</sup> 그 후에 스파르타나 아테네와 같은 都市民家간에 行해진 古代 올림픽 競技를 통해서 보면 씨름을 하는 선수들은 一定한 教育場에 모여서 體系의인 訓練을 알 수 있다.<sup>3)</sup> 東洋에서는 中國의 史記 李斯傳에 秦나라 2세

1) 李哲熙, 韓國 씨름에 關한 研究, 體育, 제94호, 大韓公論社, 1974, p. 69.

2) 印英煥, 韓國固有의 씨름에 關한 史的 考察, 體育, 제119호, 大韓公論社, 1977, p. 66.

3) 上揭書, p. 66.

가 甘泉宮에서 씨름과 배구의 놀이를 베풀었다 하였 후 三才圖會에서도 씨름(角觝)은 지금의 相撲이니 史記에 秦나라 2세가 甘泉宮에서 風流를 베풀고 씨름을 시켰다고 하였다.<sup>4)</sup>

日本은 大陸으로 부터 漢字와 佛敎가 傳來한 時代以前과 以後의 生活樣式이 變化하였고 模倣 生活를 하던 古代 日本의 敎育은 神과 自然, 親子, 兄弟, 先祖와의 關係를 理解하는 過程에서 많은 유희가 생겨났고 奈良時代부터 平安時代에 들어가면서 貴族과 庶民과의 社會的 役割이 다르게 됨으로써 그들의 人間像이 달라졌으며 庶民들은 貴族들에게 必要한 物資供給을 위한 일종의 技能으로서 劍道, 弓道, 相撲을 實施했다.

神龜5年(728)에 勅命으로 씨름하는 사람을 구경하였고 이 때부터 위대한 巨漢이 庶民階級에서 理想的인 人間像이 되었고 그와 아울러 씨름이 普及케 된 動機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5)</sup> 以上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世界 到處에서 人類의 發生과 같이 그 나름대로 盛行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 Ⅱ. 씨름의 語源

씨름의 語源에 대한 精確한 說은 찾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를 비롯한 蒙古, 中國, 日本 등의 言語類似性에서 보아 共通點이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고 순수한 우리 말로 “시루다” “씨룬다”라는 動詞에서 “시름” “씨름” “씨름”으로 名詞化된 말이 分明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sup>6)</sup> 여러 文獻의 記錄을 보면 씨름은 角觝, 角抵, 相撲, 角支, 爭交, 角力, 角校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왔으며 이들 名稱에 따라 그 實施方法에 있어서의 時代的인 變遷을 窺知할 수 있을 것 같다.<sup>7)</sup> 漢書 光武帝紀에 元封3年 봄에 씨름을 했는데 3百里 안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였다.<sup>8)</sup>라는 記錄이 되어 있다.

日本의 씨름과 韓國의 그것과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그 方式이 다르나 蒙古것과는 거의 같은데 蒙古에 있어서는 相對方의 正강이 즉 씨름을 하는 行動이 許容되어 있는 點이 特異하며 씨름의 語源이 蒙古語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나<sup>9)</sup> 時代에 따라서 하는 方式과 節次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使用된 用語가 조금씩 달라진 것으로 思慮되며 새 國語辭典<sup>10)</sup>에 서는 씨름의 풀이말 “두 사람이 하는 경기로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손을 땅에 짚게 하면 이기는

4) 문교부, 씨름, 서울신문사 출판국, 1976, pp.11~19.

5) 東龍太郎 外 6人, 保健體育學大系 8, 東京, 中山書店, 1962, pp.43~48.

6) 崔常壽, 韓國의 씨름과 그네의 研究, 亞人閣, 1974.

7) 羅尙成, 韓國體育史研究, 文泉社, 1974, pp.134~135.

8) 「古校力之戲也, 亦作角觝, 元封三年春, 作角抵戲, 三百里內皆來觀…」

9) 朝光 6月號(第4卷 第6號) 青吾歌 體角力條, pp.96~97.

10) 鄭寅承, 새 國語辭典, 徵文出版社, 1973, p.676.

경기, 어떤 대상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 행동"이라 하였고 우리 국어사전<sup>11)</sup>에서는 두 사람이 살바나 떠를 넓적다리에 걸어 서로 잡고 제주를 겨루어 먼저 땅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우리 나라의 고유의 운동이라 풀이 했다.

#### Ⅳ. 韓國 씨름의 歷史

韓國 씨름이 언제부터 存在하였는지는 정확치 못하며 史蹟이나 文獻上으로 나타난 史實을 確認하고 싶다. 씨름은 이미 三國時代 初期에 手搏과 같이 存在하였음을 알 수 있고 原始社會나 西歐諸國의 樣相과 같이 生活要求에 따라 角抵, 手搏등과 같은 鬪技가 自衛武術으로써 行하여진 事實을 누구나 다 想像할 수 있는 일이며 1905年 滿洲 집안 縣通溝에서 發見된 高句麗時代의 古墳인 角塚의 玄室壁畫에 고구려 사람들의 生活風俗을 나타낸 그림이 있는데 두 사람이 맞잡고 씨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아 古墳이 세워진 時代 以前에 씨름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sup>12)</sup>

1935年 日本人 史學者들르 구성된 第2期 高句麗 遺蹟調査團이 報告한 “通溝”<sup>13)</sup>에 角抵의 圖라고 指摘한 그림은 두 끈의 살바를 맞잡고 힘을 쓰는 씨름의 본보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으며 新羅의 씨름은 花郎徒 武藝를 통해서 心身을 修練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金度信이 中嶽과 咽薄山으로 들어가 하늘에 고하고 武藝를 修練했다<sup>14)</sup>는 것으로도 씨름 등을 통한 것이었음을 認知할 수 있는 것이다. 百濟는 夫餘族이 고구려에서 갈라져 西南쪽으로 내려와 建國한 나라로서 고구려 신라와 마찬가지로 무예를 중시하고 유희와 오락을 즐겨했다<sup>15)</sup>고 한다. 北史에 백제 사람들의 음식과 옷은 고구려와 대체로 똑 같고 신라의 風俗, 刑政, 의복은 대체로 고구려와 백제가 같다 라고 한 것을 보아 음식, 옷, 풍속등의 서로 닮은 것은 中國文化의 영향을 받은 三國이 風土와 習俗에 차이가 없는 同一文化圈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百濟에도 씨름이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씨름이 우리 나라 文獻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高麗史이며 忠惠王 元年(1331) 「三月에 王이 政事를 그의 신하인 襄佐, 朱柱에게 委任하고 매일 內堅과 씨름을 하며 위와 아래의 禮가 없었다」<sup>16)</sup> 하였으며 같은 王 4年(1343) 3월에 「王이 勇士를 거느리고 씨름을 구경」<sup>17)</sup> 하였다고 했으며 그 당시에 씨름이 宮內에 까지 普及되어 王이 좋아 했을 뿐 아니라 많은 實을 주

11) 李熙昇, 국어대사전, 民衆書館刊, 1967, p. 1781.

12) 金得攄, 丸都의 回憶, 白山學報 1號.

13) 池內宏, 梅原未治의 古墳踏査報告書.

14) 三國史記 卷41, 列傳 第1 金庾信 上.

15) 北史卷 94, 列傳 第28 百濟之國.

16) 「三月王委機務, 於嬖臣襄佐朱等, 日與內, 堅爲角, 技無上下禮」

17) 「王卒勇士 觀角抵戲」

있고 씨름을 하는 사람들을 勇士로 부른 것으로 보아 一種의 專門性을 띤 選手가 있었지 않은가 싶다. 近世 朝鮮의 歷史의 事實을 編年體로 記述한 朝鮮王朝實錄의 記錄을 보면 世宗 元年(1419)에 「上王과 王은 楸子島에 行차하여 鬻노리를 할때 강변에서 씨름을 하는 것을 보았다」<sup>18)</sup> 같은 왕 8年(1426)에 「두 使臣이 지금 南山에 올라 漢江을 굽어 보면서 활을 쓰고 力士들에게 씨름을 시켰다」<sup>19)</sup> 明宗 15年(1560) 5月 端午日에 「길에서 兩班이 무리를 만나 씨름을 하자는 요청에 들어 주지 않는다고 노하여 의복과 갓을 찢기었다」<sup>20)</sup> 顯宗 5年(1664)에 「廣州楸子에 임 집종이 같은 마을 사람과 씨름을 하다가 이기지 못한 분에 상대자를 질러 죽였다」<sup>21)</sup> 하였으니 이러한 점으로 보아 그 당시에 씨름이 盛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古史를 마무리하고 近代에 들어와 1889年 4月 30日에는 學部(現 文教部) 주척로 漢城內 官私立學校 大運動會가 열렸는데 이때 학생간의 씨름 종목이 채택한 바가 있다. 씨름이 競技로서 發展되려는 움직임이 보인것은 1912年이며 그해 10月에 柔角擧俱樂部의 주관으로 서울 團成社에서 씨름 大會가 열렸고 1915년에는 서울 光武臺극장 주관하에 그해 陰曆 1月 3日부터 4週日 동안 같은 극장에서 씨름 大會가 열렸으며 現代의인 競技로 胎動하게 된 것은 1927年에 姜樂遠, 徐相天, 韓軫熙, 姜瑬求氏 등이 우리 나라 씨름의 實態調査와 함께 朝鮮 씨름協會가 創設하면서 부터이고 1945年 8月15日 光復과 더불어 씨름協會도 再建을 보게 되었는데 1946年 명칭을 大韓 씨름協會<sup>22)</sup>로 바꾸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 V. 씨름의 競技方法과 技術種類

씨름의 競技方法과 技術을 기록한 것은 古今事物原始와 京都雜誌에 그들이 「씨름하는 방법은 두 사람이 서로 대하여 무릎을 꿇고 서로 오른손으로는 오른쪽 다리를 잡은 다음 같이 일어나 서로 힘을 겨루어 들어 매친다. 여기에는 배지기, 등지기, 판족거리 등의 기술이 있으며 중국인들은 이를 본받아 高麗技 또는 擦跤라 했다」<sup>23)</sup>

現在의 競技方法是 相對와 大會長 그리고 任員과 審判 및 觀衆을 尊敬하는 意味에서 相互間 및 本部席을 向하여 境界를 한 다음 두 사람이 허리를 굽혀 서서 살바를 마주 잡는다. 피차 相對方的 살바 잡는 準備動作이 끝나면 審判의 휘슬信號에 따라 서로 들고 걸고 다리를 잡는 등 여

18) 「上王與上 幸楸子島, 泛舟中流置 酒宗親, 而能仍觀角力士角力」

19) 「兩使登木寬山, 俯臨都城與漢江, 日眞勝地也, 仍射候使力士角力」

20) 明宗實錄(卷26) 「路遇兩 班乞徒迫令角軀之戲, 怒其不從, 毀裂衣笠」

21) 顯宗實錄(卷7) 「廣州楸子島私 奴先, 與同里世玄角力 不勝怒刺殺」

22) 최혜운, 體育百科 大事典, 藝文館, 1972, pp. c224~225.

23) 「都下少年, 會于南山之鹿, 與之角力, 其法兩人對跪, 各用右手, 擊對者云右股, 一時起立, 互擧而坪云, 有內句外句輪起諸勢, 中國人效之, 號爲高麗技, 又曰擦跤」

러 가지 기술로 힘을 겨워서 먼저 땅에 어느 한쪽이 무릎 이상의 몸을 땅에 대면 지는 것이다. 살바를 使用하는 韓國 씨름이 地方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全國적으로 盛行하는 “원씨름”은 살바를 오른 다리에 걸고 오른손으로 相對의 허리 살바를 잡고 왼손으로 相對의 오른쪽 다리에 전 살바를 잡으며 서로 오른쪽 어깨를 맞대고 하는 씨름이며 “오른(바른)씨름”은 원다리에 살바를 걸고 서로 왼쪽 어깨를 맞대고 하는 씨름이고 “머씨름”은 忠淸道와 京畿道 一部에서 있었던 허리에다 머를 매고 하는 씨름이다. “망걸이 씨름”은 北韓地域에서 있어 온 한 種類로 팔에 다 망(살바)을 꿰고 하는 씨름으로 競技中 負傷度가 높다. 우리 씨름은 위의 세가지 方式이 混用되어 施行되었으나 1961年の 全國體育大會를 계기로 現在의 원씨름으로 統一되어 있다<sup>24)</sup> 씨름 技術의 種類는 60餘種이 있으나 크게 나누어 손(팔) 技術, 다름 技術, 허리 技術, 綜合 技術<sup>25), 26)</sup>은 다음과 같다.

### 1. 손(팔)技術

1) 앞무릎치기 2) 뒷무릎치기 3) 옆무릎치기 4) 앞다리 당겨치기 5) 목 짊어 돌리기 6) 다리 들어치기 7) 손끝어 짊어 8) 모듬 앞무릎 치기 9) 허리 살바잡고 옆으로 채기.

### 2. 다리(발)技術

1) 안다리 걸어치기 2) 안다리 걸어 돌리기 3) 안다리 걸어 젓히기 4) 밖다리 걸어치기 5) 밖다리 되돌리기 6) 앞다리 걸어치기 7) 덮방치기 (뒷다리 걸어치기) 8) 든다리 밀어치기 9) 원발 차 돌리기 10) 앞다리 치기 11) 발목 걸어채기.

### 3. 허리技術

1) 배치기 2) 엉덩배치기 3) 들배치기 4) 맞배치기 5) 들림배치기 6) 들어치기 7) 들어 좌로 치기 8) 콩꺾기

### 4. 綜合技術

1) 뛰어 던지기 2) 들어 던지기 3) 꼭두 잡기 4) 좌로 뒤집기 5) 우로 뒤집기 6) 다리 걸어 뒤집기 7) 뒤로 던지기 8) 좌로 들어 치기 9) 우로 들어 치기 10) 밀어 치기 11) 잡아 치기 12) 잡아 돌리기 13) 팔꺾어 돌리기 14) 잡아 채기 15) 뒷다리 후려치기 16) 목 받쳐 들어치기 17) 오름타기 18) 목 밀어 걸어치기 19) 들어 앞다리 걸어치기 20) 뒷다리 걸어치기.

24) 韓圭高, 綜合競技 指導大事典 非記錄競技篇, 學校體育社, 1974, p.1633.

25) 上揭書, p.1636.

26) 文교부, 씨름, 前揭書, pp.105~106.

## Ⅵ. 要 約

씨름은 두 사람이 맞잡고 힘을 겨루는 技術로 人間의 歷史와 같이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인간이 自然的인 自己保存本能에 根據하여 發生하였고 祭禮行事의 一環으로서 行하여 지던것이 人間의 智的, 情緒的, 社會的 發達에 따라 즐기는 Sports와 Recreation으로 轉換한 것이며 씨름에 대한 語原의 正說은 명확치 못하며 韓國, 中國, 蒙古, 日本語의 類似性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며 漢字로 角觥, 角抵, 相撲, 角支, 爭校, 角力, 角校등의 이름으로 使用되었다.

씨름은 先史時代로 부터 發生하여 武藝로 發達하고 史實은 高麗時代부터 이고 高麗, 李朝時代를 通해서 一般庶民, 軍士, 王族까지도 씨름을 즐겨 端午, 中元, 秋夕등의 民俗行事로 盛行되었고 競技方法은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재주를 부려 힘을 겨루는 것으로 技術이 多樣하고 우리 民族特有의 民俗을 더욱 發掘하고 普及發展시키어 傳統文化를 通해서 民族主體性을 再建하여야 하겠다.

## 參 考 文 獻

- 1) 李哲熙, 韓國 씨름에 關한 研究, 體育, 제94호, 大韓公論社, 1974, p. 69.
- 2) 印英煥, 韓國 固有의 씨름에 關한 史的考察, 體育, 제119호, 大韓公論社, 1977, p. 66.
- 3) 上揭書 ' p. 66.
- 4) 문교부, 씨름, 서울 신문사 출판국, 1976, pp. 11~19.
- 5) 東龍太郎外 6人, 保健體育學大系 8, 東京, 中山書店, 1962, pp. 43~48.
- 6) 崔常壽, 韓國의 씨름과 그네의 研究, 亞人閣, 1974.
- 7) 羅絢成, 韓國 體育史研究, 文泉社, 1974, pp. 134~135.
- 8) 「古校力之戲也, 亦作角觥, 元封三年春 作角抵戲, 三百里內皆來觀…」
- 9) 朝光 6月號(4卷 6號) 青吾鞞韃角力條, pp. 96~97.
- 10) 鄭寅承, 새 國語辭典, 徵文出版社, 1973, p. 676.
- 11) 李熙昇, 국어대사전, 民衆書館刊, 1967, p. 1781.
- 12) 金得規, 丸都의 回憶, 白山學報 1號.
- 13) 池內宏, 梅原未治의 古蹟踏查報告書
- 14) 三國史記 卷41, 列傳第1 金庾信上.
- 15) 北史卷94, 列傳第28 百濟之國.
- 16) 「三月王委機務, 於嬖臣袁佺朱等, 日與內堅, 爲角技, 無上下禮」
- 17) 「王卒勇士 觀角觥戲」
- 18) 「上王與上幸楮子島, 泛中流置酒宗親, 而能仍觀角力士角力」

- 19) 「兩使登木覓山，俯臨都城與漢江，日眞勝地也，俯射候使力士角力」
- 20) 明宗實錄(卷26)「路遇兩班之徒迫令角觝之戲，怒其不從，毀裂笠」
- 21) 顯宗實錄(卷7)「廣州楮子島私奴先，與同里世玄角力，不勝怒刺殺」
- 22) 최해운, 體育百科大事典, 藝文館, 1972, pp. c224~225.
- 23) 「都下少年，會于南山之鹿，與之角力，其法兩人對跪，各用右手，擊對者之右股，一時起立，互舉而坪之，有內句外句輪起諸勢，中國人效之，號爲高麗技，又曰撩跤」
- 24) 韓圭高, 綜合競技指導大事典, 非記錄競技篇, 學校體育社, 1974, p. 1633.
- 25) 上揭書, p. 1636.
- 26) 문교부, 씨름, 前揭書, pp. 105~106.

## —Summary—

## Historical Study on Korean Ssirum

*Dae-woo Choi*

Ssirum is a match in which two contestants holding each other pit their strength against each other and its history is as old as man's history. Ssirum arose from man's natural instinct of defending oneself and since then Ssirum had been played as an event of sacrificial ritual. According to man's intellectual, emotional, social growth, Ssirum has changed into sports and recreation everyone enjoys. The etymology of Ssirum is not definite, but the term Ssirum seems to have derived from the likeness of the languages of Korea, China, Mongolia, and Japan. In China Ssirum was called Gakjco, Sangbak, Gakgi, Jainggyo, Gakryuk, Gakgyo etc. Ssirum came into existence in the prehistoric age and developed as military arts. The history of Korean Ssirum can be traced far back to Goryeo Dynasty. Throughout Goryeo Dynasty and Yi Dynasty, Ssirum was enjoyed by the general public, soldiers, and even the royal family. Hence Ssirum was prevalent as a folk match at the May Festival, on the 15th day of the 7th lunar month, and on Harvest Moon Day. The rule of Ssirum is that two contestants grappling with each other should pit their strength by exercising their own talents. There are various skills developed in Ssirum. In conclusion we should exhume and spread and develop many folk customs unique to the Korean people. We should re-establish our nation's subjecthood through our own traditional culture.